

우리 인간의 의무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다.



이화순 현민시스템(주)/대표이사

2 0세기의 전반, 세계가 물질의 진보를 거듭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고립의 역사, 외세의 개입, 그리고 내부의 혼란으로 경제적 번영을 이룰 가능성을 미루어 왔다. 우리의 경제를 철저히 자국의 이득을 위해 이끌었던 일본의 통치는 가혹했고 그 통치를 벗어나는 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그러던 우리는 이제 1세기 동안 해야 할 진보를 단 30년으로 압축해 달성하였다. 즉, 성공적으로 산업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들의 목표는 생존 그 자체였다.

20세기의 말, 산업사회로의 성공적인 진입을 이루었다. 우리의 생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지면서, 더욱 질적으로 편안한 생존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한 삶을 희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질적인 삶은 열정을 바친 산업사회의 인식을 벗을 수 없어 물질의 소유와 독점을 향한 행보를 지속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행

약력 : • 78~84 KIST • 현재 현민시스템(주) 대표이사

보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포기하게 했다.

그러나 세계는 이미 물질적인 진보의 속도가 완화되었으며 생활수준은 더 이상의 발전이 중단되는 시점에 도달했다. 이제 진보는 물질의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경제의 움직임은 경제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며,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기술은 인간의 연장으로 기본적인 기술의 변화는 항상 인간의 세계관을 나타내며 그리고 그것을 바꾸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문화적으로는 어떠한 가치관도 확립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분별의 기준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회를 만난 것이다. 새로운 진보를 예고하고 정보사회로 진입한 우리의 현실을 우선 인정하는 것으로 변화를 맞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의미를 인지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정서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 감정적이며 비논리적인 상태가 된다. 생존이 유지되고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될 때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 신뢰를 가지고 열정을 쏟아 목표를 달성하기도 하고, 허무감을 느끼고 다시 생존의 단계로 돌아가기도 한다. 우리가 열정을 갖고 이룬 목표는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자존감이 충족되면서 삶의 의미를 찾고 질적으로 향상된 삶을 구가하기도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비전과 소유의 경우 그리고 자신의 생존에만 집

착한 목표의 성취는 권태와 도피 허무감등 방향성의 상실만을 가져왔다.

이제 우리는 소유의 개념을 떠나고 단순히 존재하는 존재물로의 인식을 떠나 ‘사는 것’으로의 존재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우리는 살아 나아가면서 수많은 체험을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학습시키고 그 자체가 우리 인류의 의무라는 인지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우리는 모두가 내면에 그러한 욕구를 가졌기에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이 꾸준히 읽혀지는 것이라고 본다.

그 소설에서 일반 갈매기들은 “우리의 삶은 알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만 우리가 먹이를 찾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살아남도록 이 세상에 보내졌다는 것뿐이야.”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공인 조나단은 “내 말을 들어 주세요. 여러분! 삶을 위한 의미나 생활의 더 높은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행하는 그런 갈매기야말로 가장 책임감이 강한 갈매기가 아닐까요? 수천 년 동안 우린 물고기 대가리나 쫓아다니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삶의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배우는 일을 발견하는 일, 그리고 자유로이 되는 일이 그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발견한 것을 여러분 앞에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를 한번만 주십시오.” 이런 얘기와 함께 갈매기 사회에서 추방된 조나단은 “갈매기의 일생이 그토록 짧은 것은 권태와 공포와 분노 때문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참으로 길고도 멋진 삶을 보내게 되었다.”